

# “메달 색깔보다 무언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



여수 여도초등학교 합창단이 '제6회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 행사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 대상

### 여수 여도초교 1·3회 이어 3차례 수상

여수 여도초등학교 합창단이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의 티켓대감이 됐다. 이 대회에서 모두 3차례나 대상을 받은 초등학교가 된 것이다.

8일 여도초교에 따르면 이 학교 26명 합창단이 최근 서울 삼성교역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현대해상과 함께 하는 제6회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에서 지도교사의 창작곡 '교통약속, 희망약속'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진출한 전국 10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여도초교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대회는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염원을 음악에 담아 노래하는 대회다.

여도초교는 지난 1회와 3회 대회 때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공립화를 논의 중인 학교의 위기 상황에서 합창단으로서 정성을 다해 연습하고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학교에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의기투합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도초 합창단 졸업생 지원주양은 지난달 27일 동아콩쿠르 성악부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연합뉴스



## 장애인체육대회 9년째 출전 최고령 역도선수 전남대표 이종배씨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종배(73)씨는 역도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얼굴이 환해졌다. 매일 오전 출근하듯 체육관을 찾는다. 장애인 전국체전에 역도 선수로 출전한 순간 경험 등을 풀어놓을 때는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다.

그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강원도에서 열렸던 '제 35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역도 선수로 출전했던 장애인 '역사'(力士)다.

올해 첫 출전 선수에 오른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남 선수단 소속 유년품을 입고 출전한 지 9년째다. 매년 출전할 때마다 '기념품 가져가듯' 메달 2~3개는 꼭 목에 걸었다.

올해도 72kg 이하급 벤치프레스 종합·파워리프팅·웨이트리프팅 절단 및 기타장애 부문에 출전, 동메달 3개를 땀다.

“메달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잖아요. 올라가면 경기장 내 모든 선수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해요.” 그는 대회에 나섰던 역도 선수들 중 ‘최고령’이었다.

“모든 선수들이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 내

## 20년전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 시골로 내려와 역도와 인연

### 메달만 2박스... 올해도 등 3개

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기분, 느껴보지 않았으면 몰라요.”

남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바람이 느껴졌다.

그는 20여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쓸수 없게 됐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덮쳐요.”

다시는 깨고 싶지 않은 기억인지 말이 빨라졌다. 10년 가까이 다녔던 인천 한 컨테이너 회사에서 조장을 맡았던,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했다.

“그 때 생각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었어요. ... 죽어야 한다.” 그리고 몇 초가 흘렀을 까. “(죽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 즈음 시작한 게 역도다. 언제 시작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사고 뒤 장성 집으로 내려와 할 일을 찾다가 접어들었다. 경제력도 없는 상황(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에서 양궁 등 다른 운동에 비해 돈 들 일이 없었던 것도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광주 북구 동림동 장애인체육관을 찾아 하루 두 시간 가까이 매일 바벨을 들어올렸다.

체육관을 찾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다. 이 때 윤진도 배웠다. ‘돈 안 받더라도 출근할 데가 있는 게 다행’이라며 시작한 운동은 흘린 땀 만큼이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 건강을 찾고 자신감도 갖게 됐다.

그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 선수로 나서는 등 사회 활동도 왕성해졌다. 그의 집에 보관중인 메달만 수백개로, 상자 두 박스 분량이다.

이종배씨는 “중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며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차그룹 ‘광주 창조콘서트’ 열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기아차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 시민 등 6000여명을 초청해 ‘광주 창조 콘서트’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과 광주시는 지난 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2015 광주 창조 콘서트'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는 SBS 팝스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콘서트'를 시작으로 가수 박상민, 에일리가 만들어내는 '열정의 콘서트'와 김경호 밴드의 '불후의 콘서트'가 진행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와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 및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광주 시민에게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창조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친선 골프대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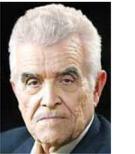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2,3기 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6일 나주 골드레이크 CC에서 열렸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김여승 광주일보 사장, 문병채 1기 원우회장, 윤풍식 2기 원우회장, 이학재 3기 원우회장 등 40여명이 참석, 골프를 통해 원우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골프행사 이후에는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로 자리를 옮겨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친선의 밤 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인문학 새로운 다원’

### 佛 르네 지라르 별세

‘인문학의 새로운 다원’으로 불린 프랑스 출신 석학 르네 지라르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밝혔다. 향년 91세.



역사학, 문학비평,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넘나든 지라르의 첫 작품인 ‘속임수, 욕망 그리고 소설’(1961년)과 ‘폭력과 성스러운’(1972년)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런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 2005년 3월에는 단 40명만 받아들여지는 아카데미 프랑세즈(프랑스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 전라도 장터 사람들

### <2> 광양장터 뽕튀기 배금선 할머니

시골의 5일 장터. 그 맛이 나려면 국밥과 각설이, 뽕튀기가 있어야 한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장터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절로 흥이 나고 장터 분위기도 달아오른다. 광양장터에서는 터줏대감이자 ‘천하여장부’로 통하는 배금선(여·81·사진 오른쪽)씨를 만날 수 있다.

그녀는 16살에 결혼해 1남 5녀를 두었으나, 37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홀로 자식들을 먹이

## 뽕튀기 인생 60년 자부심 강한 ‘천하여장부’

고 가르쳐야 했다. 남자들도 힘들다는 뽕튀기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운 세월이 무려 60년. 그야말로 강인한 모성애로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장터를 지켜온 것이다.

그녀는 옛날에 뽕튀기 값으로 500원을 받던 시절부터 1000원~2000원, 그 값이 올라 지금은 4000원을 받게 된 긴 세월 동안 일하고 있다. 광양 장날(1일·6일)이면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님을 기다린다. 60년을 한결같은 ‘장인정신’으

로 살아온 배씨는 광양시에서 주는 ‘장한 어머니상’도 수상했다.

그는 “옛날에는 대목이면 외등을 켜놓고 밤새도록 뽕튀기 기계를 돌렸는데, 지금은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아쉬워 했다.

배씨의 둘째 딸과 사위, 셋째 딸도 장터에서 뽕튀기 장사를 한다. 며느리는 장날마다 시어머니와 뽕튀기 기계를 함차게 돌리며 고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그들이 순서대로 ‘뽕이어~!’를 함차

게 외치면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가던 길도 멈추고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곳으로 몰려든다. 이것이 시골장터의 맛이 아닌가.

60년 전통의 뽕튀기 기술과 노하우를 며느리가 2대째 물려받고 있다. 배씨도, 그녀의 며느리도 장터의 삶을 나르며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만족과 자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산다. 행복 가득한 고부간의 모습이 광양장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수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이병기·김영자씨 아들 지훈군 김건·정영애씨 딸 율아양=15일(일) 낮 12시40분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사별.

▲조길선(전 광주시 상수도 남부사업소장)·김안자씨 아들 영준군 국형옥·이인숙씨 딸 진이양=22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라복웨딩홀 3층 더 하우스.

▲고재량(전 광주시 북구 도시국장)·신현순씨 아들 요석군 김사영·이교선씨 딸 혜진양=29일(일) 낮 12시30분 서울법원 종합청사예식장(후생관 2층). 광주 피로연 14일(토) 오후 6시 마리아주 웨딩스퀘어(옛 삼록회관).

### 종친회

▲전주씨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이승암)월례회=10일(화) 오후 6시 도지회 회의실 3층 062-225-5636.

### 동창회

▲광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회장 김근우)=14일(토) 오후 6시 서울 중로구 우정국로 46 아벤티리호텔 010-9473-2991.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조.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

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모집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

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상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광주시 북구 밤실피닉스 축구클럽 동호회원=30세이상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력 환영 010-2684-4490.

### 부음

▲백현숙(서양화가)씨 별세 김영옥(호남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재현(KBC광주방송 기자)·소민·신영씨 모친상=발인 10일(화) 광주시 서구 전지장례식장 301호 062-670-0030.

▲한만씨 별세 홍근·홍진·송현·미

현씨 부친상=발인 1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신경태(전 영광교육장)씨 별세 정호(한국전력)·지호·영아씨 부친상=발인 9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

소 062-231-8901.

▲김정남씨 별세 영아(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글로벌PM그룹 과장)씨 부친상 최만수(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기자)씨 빙부상=발인 9일(월) 광주 그린장례식장 5호실 062-250-4455.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201호 故장사임 님 (여/92세)</b> 子/子婦: 최만환/전희자, 해균/김명자, 삼균/배성희 女/婿: 최갑자, 김순/백종화, 순금/김삼근, 지오/김승배	<b>301호 故김길순 님 (여/85세)</b> 子/子婦: 허수환/김명순, 종환/정경화, 지환/김종옥 女/婿: 유환/임지란, 희환/주경애, 동환
* 발 인: 11월 9일 * 장 지: 화순시서선영 * 연락처: 227-4381	* 발 인: 11월 9일 * 장 지: 임실호국원 * 연락처: 227-4382
<b>401호 故임동심 님 (여/97세)</b> 子/子婦: 윤중기/박소자, 진수/백명숙 女/婿: 윤미담/김경남, 경화, 미경/다시로	<b>402호 故박양옥 님 (여/61세)</b> 子: 김예복 女: 김소리 * 발 인: 11월 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b>101호 故신두식 님 (남/81세)</b> 子/子婦: 신동국/문신자 女/婿: 신금숙/이장수, 준금/박우정, 미경/김재원 未成人: 박정민	<b>102호 故송필례 님 (여/81세)</b> 子/子婦: 정기삼/송연숙, 문성 女/婿: 장귀덕/김세종, 귀순/김관중, 명순/최오우, 나윤
* 발 인: 11월 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 발 인: 11월 10일 * 장 지: 임실호국원 * 연락처: 227-4386
<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	
<b>문의 (062)227-4000</b>	